

베이비부머세대의 유형별 삶의 만족 영향 요인

이형하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nfluential Factor of Life Satisfaction based on Types of Baby Boomer Generation

Hyoung-Ha Lee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유형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10차년도) 응답자 중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세대 가구주 1,895명이었다. 베이비부머세대를 유형화하는데 활용한 기준은 성(gender), 소득지위, 종사상 지위로 남성과 여성 각각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남성 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대해 남성IV유형($B=.074, t=1.992, p<.05$), 건강상태($B=.233, t=7.268, p<.001$), 가구소득($B=.174, t=4.476, p<.001$), 우울($B=-.182, t=-5.242, p<.001$), 자아존중감($B=.255, t=7.027, p<.001$), 신뢰($B=.064, t=2.036, p<.05$)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대해 여성IV유형($B=.100, t=2.598, p<.05$), 건강상태($B=.239, t=6.790, p<.001$), 우울($B=-.181, t=-5.142, p<.001$), 자아존중감($B=.320, t=8.600, p<.001$)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베이비부머세대,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 우울, 건강상태, 신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ultidimensional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life by type of baby boomer gener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95 households who were born from 1955 to 1963 among the respondents in the Korea welfare panel (the 10th year). The baby boomer generation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such as gender, income status, male and female as socioeconomic status. The male type IV ($B=.074, t=1.992, p<.05$), health status ($B=.233, t=7.268, p<.001$), household income ($B=.174, t=4.476, p<.001$), depression ($B=-.182, t=-5.242, p<.001$), self-esteem ($B=.255, t=7.027, p<.001$), trust ($B=.064, t=2.036, p<.05$), etc.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ale baby boomer generation. The female type IV ($B=.100, t=2.598, p<.05$), health status ($B=.239, t=6.790, p<.001$) ($P<.001$), depression ($B=-.181, t=-5.142, p<.001$), and self-esteem ($B=.320, t=8.600, p<.001$), etc.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baby boomer generation.

Key Words : Baby boomer generation, Life satisfaction, Self esteem, Depression, Health status, Trust

* 본 논문은 2017년 광주여자대학교의 학술연구비(KWU17-030)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23 August 2017, Revised 25 September 2017

Accepted 20 October 2017, Published 28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Hyoung-Ha Lee

(Kwangju Women's University)

Email: hhlee62@kw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세대가 노년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베이비부머세대의 막내격인 1963년도 생이 노년기에 진입하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가게 된다[1]. 통계청 2013년 자료에 의하면, 베이비부머세대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 4,158.2만명 중 16.5%인 648.1만 명을 차지하고 취업자 500.3만명, 실업자 10.5만명, 비경제활동인구 173.3만명으로 구성된 거대 인구집단이다[2]. 흔히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세대를 “깁 세대”라 지칭한다. 즉, 위로는 부모세대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세대를 양육하는 중간에 걸친 세대라는 것이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이처럼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양육·교육·결혼시키기 위해 소비지출 중 부모생활비와 자녀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신, 자신을 위한 투자와 노후준비는 부족한 세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세대로 간주되고 있다[3]. 더욱이 베이비부머세대는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을 경험하면서 불안정한 고용과 가족부양, 자녀의 대학진학과 결혼비용 등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4], 생애주기상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사회적·심리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시기를 살고 있다[5, 6]. 이에 더하여 베이비부머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시기와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보통 50대 중반에 퇴직하지만 연금수령은 61세가 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는 빠른 고령화의 주역으로 그 숫자도 만만하지 않아 사회, 문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어 최근 이들 세대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은퇴로 인한 경제적 과급효과에 집중되어 고용[3, 7], 라이프스타일[8], 우울[6, 7], 여가[9], 자원봉사활동[10], 결혼만족도[11], 삶의 만족도[12]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베이비부머세대를 단일집단으로 간주하거나 베이비부머세대 전·후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로 베이비부머세대가 갖는 사회적 의미나 특성 그리고

대책에 치중되어 있어, 당사자인 베이비부머세대의 다층적 삶의 유형과 삶의 만족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 역시 부족하다. 즉, 베이비부머세대의 다양성에 주목한 연구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베이비부머세대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구체적인 삶의 다양한 양상, 그러한 다양성이 이들의 노년기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질적 연구[13]는 시도된바 있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베이비부머세대를 구분하여 유형별 사례중심의 과거-현재-미래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내는 데는 의미가 높지만, 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요인을 규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서비스가 지향하는 바가 그렇듯이,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국민의 안녕감 증진, 삶의 만족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이라는 개념은 좋은 생활이란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Campbell et al.(1976)의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연구자에 따라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주관적인 행복감 등의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며,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으로 측정되기도 하고, 행복감에 비해 삶의 개별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14]. 이러한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건강, 교육, 소득, 고용, 여가 등을 지표화하여 측정한다[15]. 개인단위의 삶의 만족은 생활 전반에 걸쳐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 혹은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의 정도이며, 현재 삶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의 삶을 예측하는 기초가 된다[16, 17]. 권중돈·조주연(2000)의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을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인생목표나 욕구 달성에 비추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8]. 또한 사회적 친분관계, 친인척 관계, 가족관계, 주거환경, 여가활동, 가족의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각 개인이 인지한 심리적·주관적 만족도로 보며, 생활 전반에 관한 행복 및 만족의 정도로 보는 연구들도 존재한다[19, 20, 21].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을 베이비부머세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주관적 관점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즉, 베이비부머세대가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에 책임감을 느끼며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여 정서·심리·사회적으로 안정감과 충족

감을 가짐을 의미한다[21, 22].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면, 성별, 세대(베이비부머세대와 이전, 이후세대) 간 차이 등의 인구학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5, 23, 24, 25, 26], 건강요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26, 27], 소득[28], 경제적 어려움[2], 절대적 박탈의 영향에 대한 연구[26, 29], 우울,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7, 16], 사회적지지, 사회참여, 사회자본,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30, 31]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한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의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소득지위, 가구소득,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요인으로 신뢰와 상호호혜성 등이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라는 비교적 긴 시간인 9년에 걸친 세대라는 출생코호트의 이질성과 성별, 현재의 소득지위, 현재까지의 일자리 특성 등의 차이에 주목하여 시작하였다. 이러한 베이비부머세대의 다양한 삶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인 한국복지패널(제10차년도) 자료[32]를 이용하여 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요인을 분석하여, 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세대의 성별, 현재의 소득지위, 현재까지의 일자리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베이비부머세대의 성별, 현재의 소득지위, 현재까지의 일자리 특성에 따른 유형별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삶의 만족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베이비부머세대의 성별, 현재의 가구소득, 현재까지의 일자리 특성에 따른 유형별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의 통합적 요인들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유형별 특성과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통합적 요인들과 삶의 만족간 관계를 규명하고,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유형화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이다. 2006년 1차 원표본 가구규모가 7,072가구로 출발하여 2015년 10차 조사에서는 7,188가구를 표집하여, 6,914가구를 조사완료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10차년도) 응답자 중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세대 가구주 1,895명이다(<Table 1> 참조).

<Table 1> Research Subjects

| Birth Year | Frequency | Percent | Valid Percent |
|------------|-----------|---------|---------------|
| 1955 | 201 | 10.6 | 10.6 |
| 1956 | 209 | 11.0 | 11.0 |
| 1957 | 194 | 10.2 | 10.2 |
| 1958 | 199 | 10.5 | 10.5 |
| 1959 | 204 | 10.8 | 10.8 |
| 1960 | 248 | 13.1 | 13.1 |
| 1961 | 216 | 11.4 | 11.4 |
| 1962 | 219 | 11.6 | 11.6 |
| 1963 | 205 | 10.8 | 10.8 |
| Total | 1895 | 100.0 | 100.0 |

본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세대를 유형화하는데 활용한 기준은 성(gender), 현재의 소득지위, 종사상 지위이다. 첫째, 성은 우리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일상생활의 격차가 큰 상황을 반영하였고, 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남자와 여가 간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둘째, 경제상태의 영향력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균등화가구소득을 구하고 이 균등화가구소득의 60%이상을 일반가구로, 60%미만을 저소득가구로 분류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표본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저소

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지위 (Income Level)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종사상 지위를 최종 종사직종의 종사상지위에 기초하여 분류하였다. 최종 종사직종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 ‘고용주’, ‘자영업자’인 경우,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봉사자’, ‘비경제활동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였다.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참조).

<Table 2> Baby Boomers Types

| Gender | Job Status | Income Level | |
|-------------|-------------|-----------------------|---------------------------|
| | | Low-income Households | General-income Households |
| Men / Women | Instability | Type I | Type III |
| | Stability | Type II | Type IV |

2.3 연구도구

2.3.1 삶의 만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은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에 책임을 느끼며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여 정서·심리·사회적으로 안정감과 충족감을 가짐을 의미한다[22]. 이 척도는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 생활’ 등 7개 영역별 만족도로 구성된 5점 척도이며, 7문항을 합산하여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805이었다.

2.3.2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력수준, 건강상태 등을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학력수준은 ‘무학’부터 ‘대학원(박사)졸업’까지로, 건강상태는 ‘건강이 아주 안 좋다’ 1점, ‘아주 건강하다’까지 5점으로 측정하였다.

2.3.3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연간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가구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을 의미한다.

2.3.4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에는 우울과 자아존중감 요소를 포함한다. 우울척도는 CESD-11을 활용하였다. 신뢰도가 낮은 ‘불만없이 생활’ 1개 문항을 제외하고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 간의 느낌의 정도를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미만)’ 1점으로,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 4점으로 측정하였다.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805이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Self-Esteem Scale[33]을 활용하였다. 신뢰도가 낮은 ‘내 자신을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개 문항을 제외하고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일상생활에 함에 있어 자기자신에 대한 가치판단 정도를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970이었다.

2.3.5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비공식적 가치나 규범의 집합적 자원[34]으로 ‘신뢰’와 ‘상호호혜성’ 등이 있다. ‘신뢰’는 ‘대부분 사람들은 믿을만한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 1점, ‘대부분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2점으로 측정하였다. ‘상호호혜성’은 ‘위급한 사람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 1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베이비부머세대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유형분류 분석은 데이터 선택방법을 사용하였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유형별 삶의 만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베이비부머세대의 통합적 요인과 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유형별 분포

<Table 3>에서 분류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성별에 따

른 유형은 각각 4가지이다. 남성 I 유형은 3.5%, 남성 II 유형은 5.8%, 남성 III 유형은 21.9%, 남성 IV 유형은 68.8%로 나타났다. 여성 I 유형은 10.1%, 여성 II 유형은 3.0%, 여성 III 유형은 52.9%, 여성 IV 유형은 34.0%로 나타났다(<Table 3>참조). 남성의 경우 IV 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남성은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일하여 왔고, 현재의 소득지위도 일반 가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Table 4>참조). 여성의 경우 III 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여성은 현재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여 왔지만, 현재의 소득지위는 일반 가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 Type of Baby Boomer Generation Man

| Type | N | % | Cumulative % |
|---------|-----|------|--------------|
| Man I | 26 | 1.4 | 3.5 |
| Man II | 43 | 2.3 | 5.8 |
| Man III | 161 | 8.5 | 21.9 |
| Man IV | 506 | 26.7 | 68.8 |
| Total | 736 | 38.8 | 100.0 |

<Table 4> Type of Baby Boomer Generation Women

| Type | N | % | Cumulative % |
|-----------|-----|------|--------------|
| Women I | 64 | 3.4 | 10.1 |
| Women II | 19 | 1.0 | 3.0 |
| Women III | 336 | 17.7 | 52.9 |
| Women IV | 216 | 11.4 | 34.0 |
| Total | 635 | 33.5 | 100.0 |

3.2 연구대상자의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유형별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졸업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ype IV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졸업이 남성 30.8%, 여성 15.3%로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높은 학력수준을 나타냈다. 유형별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건강한 편이다’가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ype IV의 경우 ‘아주 건강하다’가 남성 11.7%, 여성 9.7%로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높은 건강상태를 나타냈다(<Table 5> 참조).

<Table 5> Type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 Total (%) | Man(%) | | | | Women(%) | | | |
|------------------|-----------|--------|---------|----------|---------|----------|---------|----------|---------|
| | | Type I | Type II | Type III | Type IV | Type I | Type II | Type III | Type IV |
| Education Level | 1=18.4 | 23.1 | 16.3 | 15.5 | 6.3 | 40.6 | 36.8 | 25.0 | 13.9 |
| | 2=21.8 | 26.9 | 25.6 | 21.7 | 14.6 | 25.0 | 21.1 | 26.8 | 23.6 |
| | 3=42.4 | 34.6 | 46.5 | 48.4 | 48.2 | 25.0 | 36.8 | 41.1 | 47.2 |
| | 4=17.5 | 15.4 | 11.6 | 14.3 | 30.8 | 9.4 | 5.3 | 7.1 | 15.3 |
| N | 1895 | 26 | 43 | 161 | 506 | 64 | 19 | 336 | 216 |
| Health Condition | a=1.0 | - | - | - | 0.2 | - | 5.3 | - | 0.5 |
| | b=13.4 | 11.5 | 14.0 | 8.1 | 3.4 | 21.9 | 26.3 | 9.2 | 7.9 |
| | c=24.9 | 23.1 | 34.9 | 20.5 | 19.4 | 37.5 | 31.6 | 26.8 | 22.7 |
| | d=53.5 | 65.4 | 44.2 | 62.7 | 65.4 | 37.5 | 36.8 | 57.7 | 59.3 |
| | e=7.3 | - | 7.0 | 8.7 | 11.7 | 3.1 | - | 6.3 | 9.7 |
| N | 1895 | 26 | 43 | 161 | 506 | 64 | 19 | 336 | 216 |

1=elementary school graduation and less, 2=middle school graduation, 3=high school graduation, 4=college graduation and more, a=very unhealthy, b=unhealthy, c= healthy, d=healthy, e=very healthy

3.3 연구대상자의 유형별 경제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가구소득은 전체적으로 ‘연간 6,000만원 이상’이 33.4%로 나타났고, 남성 Type IV가 57.9%, 여성 Type IV가 44.9%로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높은 가구소득을 나타냈다.

<Table 6> Type of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 | Total (%) | Man(%) | | | | Women(%) | | | |
|------------------|-----------|--------|---------|----------|---------|----------|---------|----------|---------|
| | | Type I | Type II | Type III | Type IV | Type I | Type II | Type III | Type IV |
| Household income | 1=21.7 | 80.8 | 83.7 | 7.5 | 1.4 | 89.1 | 89.5 | 8.4 | 5.1 |
| | 2=16.8 | 19.2 | 16.3 | 23.0 | 12.8 | 10.9 | 10.5 | 23.4 | 14.0 |
| | 3=16.2 | - | - | 27.3 | 13.6 | - | - | 23.7 | 19.6 |
| | 4=12.0 | - | - | 15.5 | 14.4 | - | - | 13.2 | 16.4 |
| | 5=33.4 | - | - | 26.7 | 57.9 | - | - | 31.2 | 44.9 |
| N | 1874 | 26 | 43 | 161 | 494 | 64 | 19 | 333 | 214 |

1=less than 24 million won, 2=less than 36 million won, 3=less than 48 million won, 4=less than 60 million won, 5=more than 60 million won

3.4 연구대상자의 유형별 심리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유형별 우울정도는 전체적으로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이하)’가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 IV 유형 80.0%, 여성 IV 유형 72.4%로 대부분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우울정도가 높은 ‘대부분 그랬다(1주일에 5일 이상)’와 ‘종종 있었다(1주일에 3~4일 간)’를 합한 경우 남성 I 유형 11.3%(4.8%+6.5%), 여성 I 유형 13.2%(2.2%+11.0%)로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우울정도를 나타냈다. 유형별 자아존중감은 ‘항상 그렇다’

가 전체적으로 42.3%로 나타났다. 남성IV유형 44.5%, 여성IV유형 42.3%로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자이존 증감을 나타냈다(<Table 7> 참조).

<Table 7> Type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 Total (%) | Man(%) | | | | Women(%) | | | |
|-----------------|-----------|--------|---------|----------|---------|----------|---------|----------|---------|
| | | Type I | Type II | Type III | Type IV | Type I | Type II | Type III | Type IV |
| Depression | 1=72.4 | 67.4 | 69.0 | 76.1 | 80.0 | 60.3 | 67.9 | 73.2 | 72.4 |
| | 2=22.0 | 21.3 | 21.3 | 20.0 | 16.6 | 26.6 | 22.1 | 21.8 | 22.0 |
| | 3=3.5 | 6.5 | 6.3 | 2.6 | 2.6 | 11.0 | 7.4 | 3.9 | 3.5 |
| | 4=2.2 | 4.8 | 3.5 | 1.3 | 0.8 | 2.2 | 2.6 | 1.1 | 2.2 |
| N ¹⁾ | 13302 | 230 | 400 | 1550 | 4817 | 639 | 190 | 3338 | 2138 |
| Self Esteem | a=1.7 | 7.2 | 6.9 | 2.9 | 1.8 | 4.3 | 9.4 | 2.3 | 1.7 |
| | b=14.1 | 32.4 | 24.2 | 19.6 | 13.5 | 24.3 | 19.3 | 16.1 | 14.1 |
| | c=41.9 | 34.3 | 31.7 | 41.9 | 40.2 | 40.6 | 36.8 | 41.6 | 41.9 |
| | d=42.3 | 26.1 | 31.0 | 35.6 | 44.5 | 30.7 | 34.5 | 40.1 | 42.3 |
| N | 11979 | 207 | 367 | 1395 | 4338 | 576 | 171 | 3006 | 1926 |

1=extremely rare, 2=sometimes, 3=often, 4=Most, a=not generally, b=usually, c=generally, d=always

¹⁾ Multiple responses result

3.5 연구대상자의 유형별 사회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유형별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정도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가 52.2%이며, 남성IV유형 61.4%, 여성II유형 66.7%로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신뢰감을 나타냈다. 상호호혜성 문항인 ‘위급한 사람을 도와줄 용의’에 대해 ‘그렇다’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IV유형 ‘그렇다’ 66.8%, 여성III유형 ‘그렇다’ 64.7%로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호혜성에 대한 ‘그렇다’의 응답결과 여성IV유형 63.6%, 여성III유형 64.7%로 미미한 차이(1.1%)를 나타냈다(<Table 8> 참조).

<Table 8> Type of the Social Characteristics

| | Total (%) | Man(%) | | | | Women(%) | | | |
|--------------------|-----------|--------|---------|----------|---------|----------|---------|----------|---------|
| | | Type I | Type II | Type III | Type IV | Type I | Type II | Type III | Type IV |
| Trust | 1=47.8 | 42.1 | 51.4 | 54.4 | 38.6 | 56.7 | 33.3 | 48.6 | 48.5 |
| | 2=52.2 | 57.9 | 48.6 | 45.6 | 61.4 | 43.3 | 66.7 | 51.4 | 51.5 |
| N | 1749 | 19 | 37 | 147 | 472 | 60 | 18 | 321 | 206 |
| Mutual Reciprocity | 1=1.6 | - | - | - | 0.6 | 1.6 | 5.3 | 1.5 | 0.9 |
| | 2=11.9 | 13.0 | 17.5 | 10.3 | 7.1 | 17.2 | 15.8 | 8.7 | 11.2 |
| | 3=20.9 | 39.1 | 25.0 | 16.7 | 18.0 | 28.1 | 21.1 | 20.7 | 19.2 |
| | 4=59.7 | 34.8 | 57.5 | 66.7 | 66.8 | 46.9 | 47.4 | 64.7 | 63.6 |
| | 5=5.9 | 13.0 | - | 6.4 | 7.5 | 6.3 | 10.5 | 4.5 | 5.1 |
| N | 1821 | 23 | 40 | 156 | 482 | 64 | 19 | 334 | 214 |

1=very careful, 2=mostly trusty, a=not generally, b=usually, c=generally, d=always

3.6 유형별 삶의 만족 차이 분석 결과

베이비부머세대 남성유형별 삶의 만족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F=30.071, p<.001)가 나타났다(<Table 9>참조). 즉, 베이비부머세대 남성유형별 삶의 만족도는 남성IV유형>남성III유형>남성II유형>남성I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IV유형과 남성II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남성II유형과 남성I유형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9>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life of man type

| Type | N | M | M.D. | F | Scheffe |
|---------|-----|--------|--------|-----------|----------------------------------------------------------|
| Man I | 23 | 2.9503 | .64553 | 30.071*** | I < III, I < IV, II < III, II < IV, III < IV |
| Man II | 40 | 3.0964 | .48352 | | |
| Man III | 156 | 3.4103 | .51154 | | |
| Man IV | 482 | 3.6227 | .46311 | | |
| Total | 701 | 3.5233 | .51214 | | |

***<.001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유형별 삶의 만족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F=19.312, p<.001)가 나타났다(<Table 10>참조). 즉,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유형별 삶의 만족도는 여성IV유형>여성III유형>여성II유형>여성I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II유형과 여성I유형, 여성III유형과 여성II유형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0>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life of women type

| Type | N | M | M.D. | F | Scheffe |
|-----------|-----|--------|--------|-----------|-----------------------------|
| Women I | 64 | 3.0826 | .53622 | 19.312*** | 1<3, 1<4, 2<4, 3<4 |
| Women II | 19 | 3.1880 | .56955 | | |
| Women III | 334 | 3.4367 | .47811 | | |
| Women IV | 214 | 3.5728 | .44577 | | |
| Total | 631 | 3.4394 | .49691 | | |

***<.001

3.7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Table 11>과 같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는 독립변수인 남성유형(r=.341, p<.01), 여성유형(r=.288, p<.01), 학력(r=.195, p<.01), 건

강상태($r=.513, p<.01$), 가구소득($r=.435, p<.01$), 우울($r=-.509, p<.01$), 자아존중감($r=.583, p<.01$), 신뢰($r=.190, p<.01$), 상호호혜성($r=.226, p<.01$) 등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이비부머세대가 남성IV유형일수록, 여성IV유형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상호호혜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과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1> Correlation analysis table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1 | 1 | | | | | | | | | |
| 2 | . ^a | 1 | | | | | | | | |
| 3 | .225** | .201** | 1 | | | | | | | |
| 4 | .153** | .191** | .220** | 1 | | | | | | |
| 5 | .591** | .530** | .341** | .332** | 1 | | | | | |
| 6 | -.203** | -.137** | -.125** | -.379** | -.302** | 1 | | | | |
| 7 | .312** | .230** | .205** | .413** | .300** | -.500** | 1 | | | |
| 8 | .095** | .028 | .145** | .118** | .153** | -.157** | .192** | 1 | | |
| 9 | .103** | .074 | .102** | .174** | .185** | -.154** | .273** | .192** | 1 | |
| 10 | .341** | .288** | .195** | .513** | .435** | -.509** | .583** | .190** | .226** | 1 |

**p<.01

1=type of man, 2=type of women, 3=education level, 4=health condition, 5=household income, 6=depression, 7=self-esteem, 8=trust, 9=mutual reciprocity, 10=life satisfaction

3.8 성별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 계수가 1.08~1.5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삶의 유형(소득지위, 종사상 지위) 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2>, <Table 13>과 같다.

첫째, 남성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들을 모두 투입했을 때 삶의 만족의 변량(Variance)을 41.9%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58.757, p<.001$). 남성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대해 남성IV유형($B=.074, t=1.992, p<.05$), 건강상태($B=.233, t=7.268,$

$p<.001$), 가구소득($B=.174, t=4.476, p<.001$), 우울($B=-.182, t=-5.242, p<.001$), 자아존중감($B=.255, t=7.027, p<.001$), 신뢰($B=.064, t=2.036, p<.05$)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성베이비부머세대가 IV유형일수록, 건강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성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B=.255, p<.001$)과 건강상태($B=.233, p<.001$), 우울($B=-.182, p<.001$), 가구소득($B=.174, p<.00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2> Man type regression analysis

| | B | Std. Err | B | t | Sig. |
|-------------|-------|----------|-------|--------|------|
| (Constant) | 1.625 | .213 | | 7.633 | .000 |
| 1 | .051 | .026 | .074 | 1.992 | .047 |
| 2 | -.005 | .018 | -.009 | -.298 | .766 |
| 3 | .169 | .023 | .233 | 7.268 | .000 |
| 4 | .061 | .014 | .174 | 4.476 | .000 |
| 5 | -.312 | .059 | -.182 | -5.242 | .000 |
| 6 | .332 | .047 | .255 | 7.027 | .000 |
| 7 | .065 | .032 | .064 | 2.036 | .042 |
| 8 | .026 | .021 | .038 | 1.219 | .223 |
| F=58.757*** | | | | | |
| R2=.419 | | | | | |

***<.001

1=typeIV of man, 2=education level, 3=health condition, 4=household income, 5=depression, 6=self-esteem, 7=trust, 8=mutual reciprocity

<Table 13> Women type regression analysis

| | B | Std. Err | B | t | Sig. |
|-------------|-------|----------|-------|--------|------|
| (Constant) | 1.534 | .205 | | 7.475 | .000 |
| 1 | .056 | .022 | .100 | 2.598 | .010 |
| 2 | .011 | .018 | .021 | .607 | .544 |
| 3 | .149 | .022 | .239 | 6.790 | .000 |
| 4 | .018 | .013 | .057 | 1.396 | .163 |
| 5 | -.256 | .050 | -.181 | -5.142 | .000 |
| 6 | .447 | .052 | .320 | 8.600 | .000 |
| 7 | .032 | .033 | .033 | .969 | .333 |
| 8 | -.004 | .020 | -.007 | -.212 | .832 |
| F=44.142*** | | | | | |
| R2=.376 | | | | | |

***<.001

1=typeIV of man, 2=education level, 3=health condition, 4=household income, 5=depression, 6=self-esteem, 7=trust, 8=mutual reciprocity

둘째, 여성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들을 모두 투입했을 때 삶의 만족의 변량

(Variance)을 37.6%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58.757$, $p<.001$). 여성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대해 여성 IV유형($B=.100$, $t=2.598$, $p<.05$), 건강상태($B=.239$, $t=6.790$, $p<.001$), 우울($B=-.181$, $t=-5.142$, $p<.001$), 자아존중감($B=.320$, $t=8.600$, $p<.001$)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베이비부머세대가 IV유형일수록, 건강할수록,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B=.320$, $p<.001$)과 건강상태($B=.239$, $p<.001$), 우울($B=-.181$, $p<.001$), 여성IV유형($B=.100$, $p<.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우울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력과 상호호혜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유형별 삶의 만족의 차이와, 이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다차원적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베이비부머세대의 유형별 우울정도가 높은 '대부분 그랬다(1주일에 5일 이상)'와 '종종 있었다(1주일에 3~4일 간)'를 합한 경우 남성 I 유형 11.3%(4.8%+6.5%), 여성 I 유형 13.2%(2.2%+11.0%)로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우울정도를 나타냈다. 유형별 자아존중감은 '항상 그렇다'가 남성IV유형 44.5%, 여성IV유형 42.3%로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고용지위가 불안정 할수록 우울이 높고[2, 7, 26], 소득과 고용지위가 안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16]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베이비부머세대 남성유형별 삶의 만족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F=30.071$, $p<.001$)가 나타났다. 즉, 베이비부머세대 남성유형별 삶의 만족도는 남성IV유형>남성III유형>남성II유형>남성I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유형별 삶의 만족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F=19.312$, $p<.001$)가 나타났다. 즉,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유형별 삶의 만족도는 여성IV유형>여성III유형>여성II유형>여성I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대해 남성IV유형($B=.074$, $t=1.992$, $p<.05$), 건강상태($B=.233$, $t=7.268$, $p<.001$), 가구소득($B=.174$, $t=4.476$, $p<.001$), 우울($B=-.182$, $t=-5.242$, $p<.001$), 자아존중감($B=.255$, $t=7.027$, $p<.001$), 신뢰($B=.064$, $t=2.036$, $p<.05$)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대해 여성IV유형($B=.100$, $t=2.598$, $p<.05$), 건강상태($B=.239$, $t=6.790$, $p<.001$), 우울($B=-.181$, $t=-5.142$, $p<.001$), 자아존중감($B=.320$, $t=8.600$, $p<.001$)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상태[26, 27], 우울[7], 자아존중감[16]이 베이비부머세대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남성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의 삶의 만족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은 김민혜(2010)[30], 홍성원 외(2016)[3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다만, 여성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에는 신뢰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세대의 유형별 주요 실천적 개입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 삶의 만족에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은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우울 요인임을 밝혀졌다. 지금껏 가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관행으로 미처 자신을 충분히 성찰하거나 자신이 소중함 존재임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들을 돌아보고, 신노년기에 접어드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울은 어떤 세대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요인이므로 역할감소와 역할부재와 같은 사회적 지위 상실이라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위기의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울예방 프로그램이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베이비부머세대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검진서비스와 노년기에 적합한 건강유지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부머세대의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의 차

이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고용지위와 현재의 소득수준은 삶의 질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삶의 유형이 비정규직과 저소득에 해당하는 유형 I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형 I의 삶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과 함께 건강과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주로 노인과 장애인에 집중되어 있어 은퇴와 초기 노년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공간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베이비부머세대 지원과'의 신설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베이비부머세대의 유형IV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지위와 가구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집단으로 이들을 사회적 지원체계에 편입해 지금까지 축적된 사회자본을 토대로 전문적인 영역의 사회봉사 활동가로 양성하거나, 노인 케어 담당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유형III, 유형II의 경우는 경제활동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취업과 사회적기업인턴 협동조합 등의 사회경제적 영역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는 자녀의 교육에 많은 재정을 투자한 세대임과 동시에 부모님을 부양해하는 하는 세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들 가족과의 강화를 통한 삶의 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를 단일집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했다는 데에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베이비부머세대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현재 처한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 역시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세대와의 비교분석을 하지 못한 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사회자본 변인과 가족관련 변인 등의 영향력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2017(KWU17-030).

REFERENCES

- [1] M. R. Kim, "A Comparative study of the factors of women's quality of Life by generation-babyboom, X and pre-older adul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1, pp. 7-34, 2011.
- [2] J. H. Kim, W. M. Kang, "A Longitudinal Study on Household Income and Quality of Life Trajectory in Baby-boomers : focused on South-East Region in Korea,"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51, pp. 1-24, 2014.
- [3] Y. H. Kim, S. E. Lim, "A Critical Review on Definition of the Baby-boom years, Labor market shocks,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fe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 No. 2, pp. 36-59, 2011.
- [4] I. J. Rha, C. Y. Lim, So-Hwa Park, "Preparing for the Retiring Baby Boom Generation(RBBG) in Korea: from the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ewspectiv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2, pp. 151-174, 2008.
- [5] S. K. Lee, "Health and Labor Ability of Baby Boomers," *Labor Review*, Vol. 2016, No. 6, pp. 37-47, 2016.
- [6] S. D. Chung, M. J. Koo,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 Comparison among Babyboomers,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2, pp. 305-324, 2011.
- [7] J. H. Kim, W. M. Kang,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Poor Baby Boomers and Non-Poor Baby Boome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3, pp. 423-443, 2014.
- [8] S. D. Chung, H. S. Jeon, J. H. Jeon, "The Influence of Lifestyle on Subjective Mental and Physical

- Health: Comparative Analysis Among Baby-boom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67, pp. 61-82, 2015.
- [9] E. J. Kim, “Leisure Activities and Volunteering among the Baby-boom Generation as it Influences Social Integration,”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40, No. 6, pp. 227-245, 2016.
- [10] M. R. Kim, “The Effect of Babyboomer Volunteers’ Volunteering on the Social Integration: Whom Reside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5, No. 3, pp. 765-783, 2015.
- [11] J. Y. Son, G. H. Han, “The Effects of the Socio-economic Resource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Trai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Korean Baby Boomers: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4, No. 4, pp. 185-216, 2014.
- [12] H. G. Shin, “Effect of Baby Boomers’ Economic Status on Quality of Life : Mediated by Old Age Preparation and Moderated by Employment, Birth Cohor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30, No. 4, pp. 161-183, 2014.
- [13] K. H. Jung, Y. H. Oh, Y. K. Lee, B. M. Park, “A Study on the Diversity of Baby Boomers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 [14] A. N. Kim, S. A. Choi, “The Effects of Deprivation and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Social Welfare Policy*, Vol. 43, No. 1, pp. 81-105, 2016.
- [15] S. K. Kahng, “An Exploratory Study on Generation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Generational Comparison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3, No. 4, pp. 91-119, 2012.
- [16] Schalock, R. L. (Ed.), *Quality of life Volume I.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1996.
- [17] Y. O. Lim, J. E. Seok, Y. J. Kim, “A Study on the Flourishing Affecting Life Satisfac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46, pp. 81-103, 2015.
- [18] J. D. Kwon, J. Y. Cho,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0, No. 3, pp. 61-76, 2000.
- [19] S. J. Kang,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Life-satisfaction in Korea,”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58, No. 1, pp. 5-36, 2010.
- [20] K. J. Kang, J. O. Im, M. Y. Lee, “The Effects of Psychosocial Resources on Life Satisfac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3, pp. 387-404, 2014.
- [21] Y. M. Yang, K. L. Hwang, J. S. Kim, “An Analysis of Female Householders’ Life Satisfaction by their Poverty Status: Focused on Gender Role Perception and Volunteer Activ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6, No. 4, pp. 85-114, 2015.
- [22] Korea Labor Institute, “Change in life satisfaction,” *Labor Review*, Vol. 2005, No. 12, 2005.
- [23] S. M. Park, J. A. Son, S. W. Bae, “A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prospectiv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 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5, No. 3, pp. 1-24, 2009.
- [24] S. S. Choi, H. S. Park,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on the Loneliness of the Elderly: Focusing on Urban-rural Complex A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4, pp. 1277-1293, 2009.
- [25] H. S. Yoon, S. W. Won, “The Impact of Spirituality and Religious Involvement on the Relationship of Health Status with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4, pp. 1077-1093, 2010.
- [26] H. J. Kim, “The Impacts and Limitations of US Welfare Policies for One Parent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No. 13, pp. 77-102, 2004.

- [27] S. M. Moon,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socioeconomic, health-related, and health behavioral factors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6, pp. 259-271, 2017.
- [28] J. S. Lee,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Poor Disabled Persons -Focus on Registration Disable Persons of Gwang-Ju City in South Korea-,"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Vol. 16, No. 1, pp. 79-105, 2009.
- [29] A. N. Kim, S. A. Choi, "The Effects of Deprivation and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Social Welfare Policy*, Vol. 43, No. 1, pp. 81-105, 2016.
- [30] M. H. Kim, "The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the Health of Korean Elderly: Analysis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2006-2008," Thesi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 [31] J. S. Park, Y. J. Yu,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1, pp. 63-70, 2016.
- [3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Welfare Panel Study(the 10th)*, 2016.
- [33]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34] W. J. Lee,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health status of the baby boomers," Dissertation from Korea University, 2016.

이 형 하(Lee, Hyoung Ha)



- 1988년 2월 : 전남대학교 사학과(문학사)
- 2000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4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다문화정책, 사회복지법제
- E-Mail : hhlee62@kwu.ac.kr